

강기정 시장, 추석 앞두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진료 현장 살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점검...의료진·보호자 목소리 경청
추석 연휴 동안 걱정 없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정상 진료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오후 7시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광주기독병원을 찾았다.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9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현장과 추석 연휴 진료 운영 계획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강 시장은 먼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진료현장을 살펴보고, 병원을 찾은 보호자들을 만나 어린이병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두 살 아이가 갑작스레 아파 병원을 찾은 한 보호자는 “그동안 휴일이나 심야에 운영되는 어린이병원이 없어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병원 응급실을 수소문하느라 발만 동동 굴렀다”며 “이제라도 광주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광주에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손주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또 다른 보호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갈수록 사라진다고 한다”며 “곧 둘째 손주도 태어나는데 걱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매일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들과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존중을 통한 의료서비스’라는 슬로건처럼 생명존중을 실천하고자 공공어린이심야병원을 시작한 만큼 어린이 안심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 안심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광주기독병원 의료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긴 추

석 연휴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하니 안심이다. 부모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한밤중 아이가 아플 때 부모와 아이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부담을 덜고 어린이 안심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일 및 휴일 24시(밤 12시)까지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올해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밤 12시까지 경증 소아환자를 외래진료함으로써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 및 환자 분산을 통한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기를 맞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내 손안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오후 7시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광주기독병원을 찾았다.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9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현장과 추석 연휴 진료 운영 계획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광주시 제공

변화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2년 11월 임미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근거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24시(밤 12시)까지 정상 운영된다.

병원 진료 시간은 ▲평일 오후 6시30분~24시(밤 12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24시(밤 12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10시~24시(밤 12시)이다. /이유빈 기자

전남,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준비상황보고회



전남도는 전국체전 개막 3주를 앞둔 25일 도청에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도-시군 합동 준비상황보고회를 열어 막바지 현장 위주 준비를 다짐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전국체전 개막 3주를 앞둔 25일 도청에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도-시군 합동 준비상황보고회를 열어 화합·감동체전을 위한 막바지 촘촘한 현장 위주 준비를 다짐했다.

보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주재로 전남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22개 시군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체전의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대회 기간 전남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대회 운영, 교

통·주차대책, 숙박·위생업소 점검, 인과관리 대책,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도민의 얼굴로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화장실 위생 관리와 방치된 쓰레기 수거, 보도블록 잡초 제거 등 세세한 부분의 환경정비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와 유관기관, 시군 간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벽한 화합·감동 체전을 달성할 방침이다.

‘도민화합체전’을 위해 당초 모집 목표를 훨씬 넘는 도민응원단(1

만 5천571명)과 자원봉사단(4천256명) 모집을 완료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선수단의 사기진작, 활기찬 대회 분위기 조성, 경기장 안내와 질서유지, 체전과 전남 홍보 활동 등 양대체전 성공 개최의 핵심 주역으로 활약하게 된다.

자연과 문화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의 열린음악회 녹화를 마쳐 오는 10월 8일 방영을 앞두고 있다. 또 전국체전 개최식 전남인 10월 12일 특별기획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체전 기간 중 대한민국예술축전,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단체 공연, 버스킹,

시군 연계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집중 개최한다.

경기장은 신축과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했다. 개·폐회식 입·퇴장 관리, 교통대책 등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 경기장 안전점검 등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기는 환경을 구축, ‘안전체전’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서용운 기자

6일 캐리와 꼬마친구들

7일 반짝반짝 달님이

8일 브레드 이발소

9일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

제23회 **곡성심령**

어린이

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3. 10. 6. 금 - 10. 9. 월

곡성심진강기차마을